

독서단 성지순례

일 시 : 2026. 06 . 06 (토)

장 소 : 남한산성 순교 성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63-58)



“ 한옥 성당-연면적 약 296㎡ 규모의 2층 한옥 건물 ”

남한산성 순교성지의 성당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남한산성의 역사를 담은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과 절제된 장식 속에 순교 신앙의 의미를 담아, 방문객들이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자양2동 성당 독서단.

1. 성지순례 일정

일정 : ▶ **성당 출발(8:30 ~)**

▶ **성지주변 관람 - 포도청,제승헌,연무관.(10:00 ~)**

▶ **미사참여(11:00 ~)**

▶ **점심(12:10 ~)-장성식당**

▶ **십자가의 길(13:30 ~)**

▶ **커피 또는 차 (14:30 ~)**

▶ **성지 출발(16:00 ~)**

2. 참가자 : 단원 15명

독서 단원 : 김재현,남희정,송윤희,유혜란,강경숙,민정자,이들자

김남숙,김수학,정재영,김민경,정인화,강용진,유남숙,유미숙

◆ 차량 봉사자 : 민정자 아네스(9명), 김재현 바오로(6명)



제14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어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부활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저희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저희가 온갖 위험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으로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곳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서 죽음에서 일어나시어 저희를 비추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마침기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사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충실하고 또한 주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 일치하며 기쁘게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기쁨과 찬미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기도와 사랑으로 독서단이 더욱 활기차게 변화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성호경)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잠시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난다. 우천 시 묵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고통은 끝나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저희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언제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
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
에도, 잠을 잘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차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셨으니 편히 쉬십
시오.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
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
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가정에서 가족들을, 직장에서
동료들을 주님께 이끌겠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성모님께 위로받고
그 품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천주교 남한산성 순교성지에 대해

1. 역사적 배경 및 의의

남한산성은 한양의 군사적 요지로 천주교 박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
었는데, 이미 신해박해 (1791년)때부터 신자들이 남한산성에 투옥되었다
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으며, 신유박해 때에는 첫 순교자 한덕운 토마스가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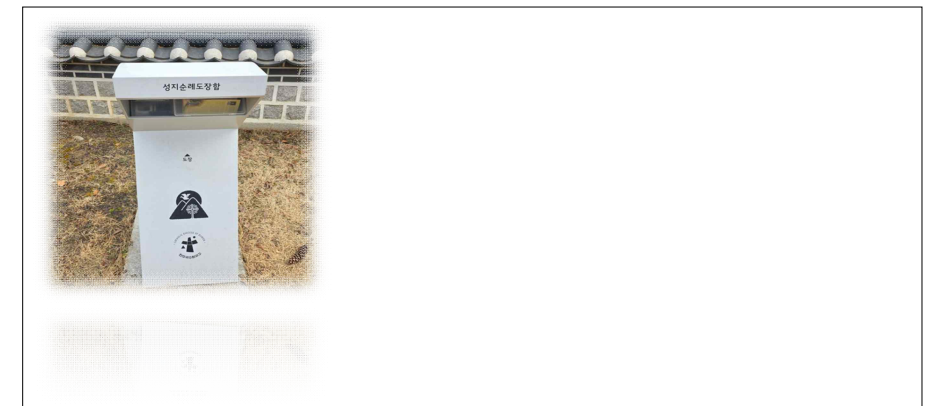
이어 기해박해와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약 300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
들이 참수, 교수, 장살 등의 방법으로 순교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순교자들
가운데 일부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병인박해 때에는 이곳에서 백지사(死)라는 특이한 형벌이 시작되었다. 이
것은 사지를 묶고 얼굴에 물을 뿌린 뒤에 한지를 덮는 일을 거듭하여 숨
이 막혀 죽게 하는 형벌이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잡혀 오자 피를 보는 일에 진저리를 낸 포졸이나 군
사들이 쉽게 처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이었다.

순교자 가운데 행적이 밝혀진 분은 첫 순교자인 복자 한덕운 토마스를 비
롯하여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일가인 김덕심 아우구스티노, 김윤심 베
드로, 김성희 암브로시오, 김차희, 김경희, 김윤희와 이천 단내 출신 정은
바오로, 정 베드로 등 36명에 이른다.

◆천주교 남한산성 순교 성지 순례지 방문도장 찍기



십자가의 길(자양2동 성당 독서단 용)

✠시작기도

十성호경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저버리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도인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소홀히 한 것과 안일하게 한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고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느끼신 고통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저희에게 잘못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1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저희가 하느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준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다시는 결점이나 잘못을 들추어 내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저희가 지은 모든 잘못을 깨달아 화해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옷을 입으십시오. 저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어 저희 자신에게만 정성을 쏟지 않고, 저희보다 더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친절하고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사랑의 옷을 입으시고 임금님으로 저희에게 어서 오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이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작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로 주님 상처의 아픔을 덜어 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 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주님 상처의 아픔을 덜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저희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 찬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를 헐뜯고, 저희가 필요로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도 저희가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차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일어서시어 저희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그릇된 데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알려 주신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모두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길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시관을 벗으시고 십자가를 내려 놓으십시오. 이제 그 십자가는 저희가 지겠습니다. 이제야 저희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저희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 놓으십시오. 이제 그 십자가는 저희가 지겠습니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저희의 잘못으로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가셨듯이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때 성모님께 의지하고 위로받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도 위로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차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묵묵히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저희도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험벗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르는체하지 않고, 저희에게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차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릇된 일을 거부하고 바른 일을 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선입견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어 그들에게 다가가 돕고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깊은 상처를 씻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차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十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희의 잘못으로 두 번씩이나 넘어지시어 다시는 일어나서 실 기운조차도 없으시겠지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다시 일어나시어 저희의 사랑을 어여뵈 받아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차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